

주춤



테슬라 '모델3'

상반기 수입 전기차 판매 현황

국내 수입전기차 시장을 호령했던 테슬라의 기세가 다소 꺾이면서 주춤하는 사이, 메르세데스-벤츠를 필두로 한 전통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거센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테슬라의 점유율이 올 상반기 크게 빠져나간 반면, 그 공백을 전통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면서 채워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한국수입자차협회(KAIDA)가 집계한 수입 전기차 통계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테슬라 판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자동차는 1만2959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431대에 비해 13%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올 상반기 6746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9705대) 31% 상당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테슬라의 판매 비중은 작년 상반기 84.9%에 달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52%로 무려 32%포인트나 급감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수입 전기차 10대 중 8대 이상을 테슬라가 팔았지만, 올해는 10대 중 5대 정도밖에 팔지 못한 셈이다.

테슬라가 주춤하는 동안 다른 외국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6213대로, 작년 동기(1726대)보다 260%나

반격



벤츠 '더 뉴 EQS 350'

테슬라 6746대로 전년대비 판매 비중 32%p 줄어든 52% 벤츠·BMW 등 '신차 효과'로 6213대 판매...260% 늘어

증가했다.

점유율도 지난해 상반기 15.1%에서 올해 상반기 48%로 33%포인트 가까이 치솟으면서 크게 늘었다.

그 중에서도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BMW가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그동안 독주를 이어오던 테슬라에 반격을 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업체별로 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올 상반기 1395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 337대에 비해 4.1배나 판매가 증가하면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수입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전년 2.9%에서 10.7%로 7.8%포인트나 급상승했다.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3위는 BMW가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76대 판매에 그쳤던 BMW는 올 상반기 1238대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16.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0.7% 수준에 불과했던 BMW의 점유율도 9.5%로 상승했다.

이밖에 폴스타는 올 상반기 936대를 판매해 점유율 7.2%를 기록했고, 이어 824대를 판매한 포르쉐는 6.3%, 미니(MINI)는 612대를 판매하면서 4.7% 점유율을 보였다. 볼보와 아우디도 올 상반기 각각 502대, 393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점유율 3.9%, 3.0%를 나타냈다.

이처럼 전통의 강호들이 신홍 강자인 테슬라와 맞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증가한 것은 일단 신차 출시로 인한 '신차 효과'가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전동화 트렌드로 급변하면서 기존 전통의 브랜드 역시 속속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7월 전기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더 뉴 EQA'를 출시한 것에 이어 4개월 뒤인 11월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더 뉴 EQA의 경우 올 상반기 865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벤츠는 패밀리 전기 SUV '더 뉴 EQB'와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 등을 올해 출시하는 등 전기차 라인업을 크게 확장하고 나섰다.

BMW도 지난해 11월 뉴 X3 모델 기반의 순수전기차 '뉴 iX3'와 플러그인 순수전기차 '더 iX'를 내란히 출시했고, 지난 3월 'i4 M50'과 'Mi4 eDrive 40'도 출시해 국내에서 총 6종의 전기차를 팔고 있다.

볼보와 중국 지리차의 합작회사인 폴스타는 지난 1월 순수 전기차 폴스타2를 내세워 국내시장에 진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진격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2023 아이오닉 5' 출시

배터리 용량 증대 주행거리 늘고 안전·편의사양 기본 적용

현대자동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연식변경 모델 '2023 아이오닉 5'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배터리 용량을 증대해 주행가능거리(AER)를 늘리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안전 및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우선 현대차는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 용량을 72.6kWh에서 77.4kWh로 개선해 완충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를 429km에서 458km로 29km 늘렸다.

배터리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해 배터리 충전 효율성을 높이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고객 선호 사양인 ▲ECM 룸미러 ▲하이패스 시스템 ▲레인센서를 기본 장착했다.

배터리 컨디셔닝은 외부 온도가 낮을 때 출력 성능을 확보를 위한 배터리 예열뿐만 아니라 고객이 급속 충전소를 목적지로 설정하면 배터리 온도를 미리 최적화해 충전 성능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또한 롱레인지 모델에 4륜 구동 신규 트림인 E-Lite HTRAC을 추가했으며, 기존 최다 선호 외장 컬러인 '아틀라스 화이트'의 무광 버전 '아틀라스 화이트 매트'를 신규 컬러로 운영한다.

2023 아이오닉5의 판매 가격은 세제혜택 후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005만원, 롱레인지 모델 ▲익스클루시브 5410만원 ▲E-Lite HTRAC 5495만원 ▲프레스티지 5885만원이다. 택시 모델은 ▲영업용 4790만원 ▲영업용 롱레인지 패키지 5410만원이다. 여기에 환경부 보조금 700만원과 지자체별 보조금. 택시 추가 보조금(택시 모델 한정)을 받으면 실제 구입가격은 더욱 낮아진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특히 2023 아이오닉 5 고객은 2륜 및 4륜 구동 모델과 상관없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5는 늘어난 주행거리와 배터리 컨디셔닝 기본 탑재로 강력한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차별한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기차 핵심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오닉 5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World Car of the Year, WCOTY)',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차', '아우토 빌트(Auto Bild) 최고의 수입차(Best Import Cars of the Year) 전기차 부문 1위',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 전기차 비교평가 종합 1위'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 콘셉트카 공개



현대자동차는 최근 '현대 N 데이' 영상을 공개하고 N브랜드의 전동화 비전을 담은 고성능 차량 'RN22e', 'N Vision(비전) 74'를 소개했다. RN22e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첫 N브랜드 차량으로, N Vision 74는 배터리 모터와 수소연료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개발된 최초 모델이다. 사진 왼쪽부터 'RN22e'와 'N Vision 74'.

'더 고급지다' 기아 '2023 K5' 본격 판매

기아는 19일부터 중형 세단 K5의 연식변경 모델 '더(The) 2023 K5'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아의 K5는 2019년 3세대 모델 출시 이후 2030세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이다. 지난해 5만6000여대가 판매돼 국산 중형차 시장점유율 52%(영업용 미포함)를 기록하는 등 기아의 대표적 중형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K5 연식변경 모델은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가니쉬를 적용해 외장에 고급감을 더하고 기존에 옵션으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일부 고급 편의사양을 트림별로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기아는 설명했다.

고급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에는 뒷좌석 측면 수동 선택권을 기본으로 적용,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 기존 선택사양으로 운영하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했고, 노블레스 이상 고급 트림에는 전방레이더를 기본 탑재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재출발)과 전방 충돌방지 보조(사이클리스트·교차로 대항차) 기능을 추가하는 등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보다 고급스럽고 날렵한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상위 모델 '블랙 핏'도 추가로 출시한다.

블랙 핏 모델은 18인치 블랙 포인트 전면가공 휠과 블랙 하이그로시 리어 스포일러를 탑재해 외장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더 2023 K5의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1.6 가솔린 터보 모델) ▲트렌디 2400만원(2479만원) ▲프레스티지 2,651만원(2768만원) ▲노블레스 2862만원(2979만원) ▲시그니처 3205만원(3284만원)이다. 2.0 하이브리드 모델은 ▲트렌디 2834만원 ▲프레스티지 3031만원 ▲노블레스 3262만원 ▲시그니처 3551만원이다. 2.0 가솔린 모델과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블랙 핏 사양을 선택하면 50만원, 2.0 하이브리드는 70만원이 추가된다.

기아 관계자는 "고객 선호도 기반으로 상품성을 강화한 2023 K5와 최상위 스페셜 모델을 통해 중형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렌탈 편의점서 신청하세요

이마트24와 협업...내달까지 임차료 면제 등 이벤트

금호타이어는 렌탈 플랫폼 기업 비에스온과 함께 운영 중인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또로로 서비스 렌탈'을 이마트24 편의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로로서비스 렌탈'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이마트24 편의점을 방문해 연락처만 남기면 걸려온 해피콜을 통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장착 대리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경차부터 중형차, SUV 등 모든 차종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하고 장착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담완료 후 안내문자를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절약형 렌탈 선택 시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변형 서비스를 선택하면 무료로 열

라인먼트와 위치교환 서비스, 타이어 파손시 1+1으로 교체해주는 타이어보상 보험 프로그램(타이어 추가 교체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방문 픽업 서비스를 추가하면 전문 기사가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해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제휴카드 이용 시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청구할인 금액으로 렌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금호타이어와 비에스온은 이번 이마트24와의 협업을 기념해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해당 기간 이마트24를 통해 또로로서비스 렌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렌탈 등록비 면제, 3개월 렌탈료 면제, 선택 사은품 수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